

“사지말개 입양하개”

담양군,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 통한 동물복지 실현
검사·수술비 15만원 지원 입양자 부담 덜어



담양군이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나섰다.

물은 13만여마리로, 담양지역에서는 284마리로 201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담양군은 지역 내 동물보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동물판매가 이뤄졌던 담양 5일장에서 입양 캠페인을 했다. 펫마켓과 동물보호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했다. 군은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확약한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수술비용 25만원 중 60%인 15만원을 지원, 입양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산골오지마을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

2025년까지 243억 원 투입해 상수관로 57km 매설
토지면 피아골·문수골 등 10개 마을 620가구 혜택

구례군의 피아골과 문수골 등 10개 마을에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24일 구례군은 지방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토지 지방 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토지면 문수, 송정, 외곡, 내서, 내동리 10개 마을 620여 가구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피아골 계곡과 문수골 계곡 주변 마을이다. 이 지역은 급수원이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개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

어 가뭄과 혹한기 동결에 따른 용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군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9년 이 지역을 포함 시킨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고,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시설설계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2021년도에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토지 지방 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는 243억 원이 투입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설설계와 행정절차를 마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가방 안전커버’

등·하굣길 안전 위해 형광색 가방 커버 1300개 지원



23일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왼쪽 두 번째)과 김영길 나주교육지원청장(우 세 번째)이 어린이가방 안전커버 전달식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가방 안전커버’ 1300개를 23일 나주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나주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

한 신입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가방 안전커버’ 1300개를 23일 나주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눈에 잘 띄는 형광색으로 제작한 커버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나 빗길에 보행 중인 어린이를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커버 디자인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숫자 30’을 크게 표기했다. 여기에 실용적인 방수처리가 돼 있어 폭우와 폭설에도 가방이 젖는 것을 막아준다.

나주시가 지원한 ‘가방 안전커버’는 교육지원청이 개학에 맞춰 각 학교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등굣길 조성 과 함께 자발적인 선진교통질서 확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정찬주 작가 역사 대하소설, 화순군 누리집에 연재한다

입진왜란 당시 화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찬주 작가의 역사 대하소설 ‘조선의 혼은 죽지 않으리’가 화순군청 누리집에 연재된다. 전남 화순군은 24일 정찬주 작가의 신작 역사 대하소설이 3월4일 오전 9시부터 매주 목요일 누리집에 연재된다고 밝혔다. 이 소설은 입진왜란 당시 풍전등화

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화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최경희, 구희, 오방한, 문홍현, 조현 등 화순의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화순 민중의 치열했던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 이 소설은 오는 12월30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연재되며 화순군청 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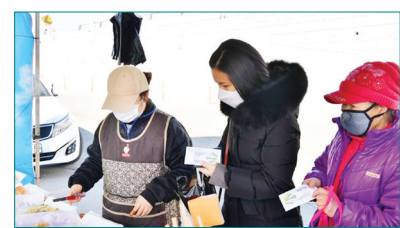
집에 접속해 구독할 수 있다. 정 작가는 화순군 이양면 이불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정 스님, 다산 정약용 등 고승과 역사 인물의 삶을 소설로 다뤄왔던 인기 작가다. 정 작가의 작품 ‘이순신의 7년’은 전남도 누리집에 연재되기도 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오늘부터 판매 재개”

상품권 소진 시까지 10% 할인 판매... 1인당 판매한도 50만원

장성군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일시 중지했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의 판매를 25일부터 재개한다. 군은 상품권 소진 시까지 10% 할인 판매를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 사제기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인당 판매 한도를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 판매 재개로 역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 부양을 도모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 회복과 민생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유근기 곡성군수,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유근기 곡성군수가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감지기과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119 릴레이 챌린지에 24일 동참했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됐다.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 불은 대피 먼저!’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화재 예방과 대처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특히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유근기 군수는 담양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곡성군의회 정인규 의장을 지목했다. 한편 곡성군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주택 화재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